

임시평의원회 결과보고

춘계학술대회 기간인 2019년 5월 5일에 임시평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91명의 평의원 중 59명이 참석하고 28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공의 정원이 20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20명인 핵의학전공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16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찬성측 의견으로는 현재 배출된 전문의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 퇴직 예정 핵의학전문의 수보다 전공의 정원이 많은 점 등이 있었고,

반대측 의견으로는 정원을 줄이더라도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수련 병원의 수가 줄면 몇몇 병원에서는 지원자가 있어도 선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어 16명으로 전공의 TO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이 N-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현재 N-1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을 N-2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찬성측 의견으로는 수련 병원에 필수 핵의학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면 전공의 수련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수련 병원에 핵의학전문의 정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고,

반대측 의견으로는 현재 2명의 핵의학 전문의가 수련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중 지도 전문의 숫자를 늘리기 어려운 기관이 있다는 점, 지도 전문의 수를 채우지 못해 수련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어 지도 전문의 수 기준을 N-2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임상근거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핵의학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학회차원에서 검토하고 밝히는 임상근거위원회가 설립을 위한 TFT 활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핵의학 의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삽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상근거위원회는 핵의학의 임상적 유용성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객관적 근거를 창출하여 의료보험 급여규정 설정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평가원 부당삽감에도 이의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의원회에서 임상근거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민정준 부회장, 임상근거이사로는 최준영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4. 핵의학인공지능연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전반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계에도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의학회 내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한 연구회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재승 교수를 포함한 37명의 발기인이 연구회 설립을 요청하였고, 이번 평의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5. 학회 명칭 교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범희승 평의원이 학회 명칭 변경 의견을 개진하였고, 평의원회에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원진에서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TFT 구성 등을 통해 학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회명칭 변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TFT 등에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학회 명칭을 정하는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대한핵의학회 60주년 준비에 관한 사항

대한핵의학회 60주년 준비가 필요하다는 천기정 평의원의 제안이 있었으며, 차기 회장인 민정준 부회장이 6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공감하는 평의원들께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난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잡한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핵의학회 모든 회원에게 내용을 공지하여 드립니다.